

대한민국은 지금 몇시입니까

사법부 신뢰 깨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이규진
총괄부회장

‘잔인한 4월’이 시작됐다. 그러나 3월 말은 더 잔인했다. 중국에서 불어 닥친 황사와 미세먼지로 대기는 온통 뿌옇고,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 사상 최악의 산불 소식에 놀란 가슴, 시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다. 바다 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입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관세 폭탄발언에 나라 경제 걱정이 태산이다. 동맹이라는 미국이 왜 이러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신이 혼미하다.

얕친데 덮친 격으로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국민들의 마음은 말 그대로 낙심천만이다.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모조리 뒤집혔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재명 발언이 단순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며 사법부의 권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의견표명이지 허위가 아니란다. 사진이 있고 당사자의 동영상이 있고 증언자가 여럿 있는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단다. 백현동 인허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공개 발언도 과장된 것이지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이란 모두 이런 것인가? 국민은 영 혼란스럽다. 1심 판사들과 2심 판사들이 만나 왜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과 판결을 내렸는지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판사들에게 묻는다. 구구단 마지막 ‘구구 팔십일’은 ‘참’인가 ‘허위’인가? 삶을 고양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삶을 사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학도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법적 지성’(legal mind)에 비추어 볼 때 ‘참’인가 ‘허위

인가? 건전한 상식의 시민들은 지금 ‘사법정치’에 의혹을 보내며 법치주의를 걱정한다. 이게 나라인가? 이래야만 하는 국민은 참으로 우울하기만 하다.

온 국민의 초미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행보도 영 마뜩찮다. 변론종결이 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3월31일 현재) 심판 기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선고 날짜부터라도 ping결해 국민들에게 발표해서 답답한 가슴을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금언이 있다.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 여부는 국가 중대사인 만큼 늦게라도 제대로 판결하겠다는 요량이라면 몰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을 헌법재판관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2면에 계속〉

알림 역사 문화탐방 5월 28일 갑니다

프레스센터 앞 오전 8시 30분 출발
충남 아산 현충사 및 외암마을
‘이순신 장군의 소통리더십’ 세미나

대한언론인회 2025년도 상반기 역사문화 탐방은 5월 28일(수요일) 충남 아산으로 떠납니다. 충효의 고장 아산에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얼이 서린 현충사와 전통 마을인 외암마을을 탐방합니다. 현충사에선 본회가 주최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소통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에 참가하여 이순신 장군의 언론소통 방식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 출발일시 : 2025년 5월 28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 출발장소 : 프레스센터 앞(신동아 관광버스 3대 대기)
- 가는 곳 : 충남 아산 현충사 및 외암 마을
- 참가신청 : 4월 28일(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에 한함
- 인 원 : 선착순 120명
- 기 타 : 출발 당일 오전 8시 20분까지 탑승완료 (죽전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하실 분은 사전 통보 바람)

대한언론인회

대한언론상 공모...5월 30일 마감

대한언론인회는 매년 뛰어난 보도활동을 통해 한국 언론의 발전과 언론 창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대한언론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아래에 같이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가. 수상부문 : △뉴스 취재보도부문 △기획·탐사보도부문

나. 보도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

다. 구비서류

〈개인〉 이력서, 명함판 사진 1장, 세부공적내용(보도된 기사요약) 1부 (A4용지 2페이지 이내), 소속 단체장 추천서 1부
〈단체〉 소속단체장 추천서 1부, 공적자료(A4용지 1페이지 이내) 및 관련 사진

라. 접수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 04520), 전화 02)732-4797~8

E-mail : kjc1405@kjclub.or.kr

마. 접수마감 : 2025년 5월 30일(금) 오후 5시

바.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수상자 발표 : 2025년 7월 1일자 <대한언론> 지면과 개별통지

대한언론인회

‘사법정치’에 법치주의 실종 우려

<1면에 이어서>

처음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에 비춰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초스피드로 속도를 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판결이 예상과 관행보다 너무 늦어지니 의심의 눈초리가 매서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또 정치재판을 하기 위해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좌고우면(左顧右睞)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에 불복하고 나아가 사회적 혼란이 크게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헌법재판소 설립의 산파역을 맡았

던 한국 헌법학회의 거두인 허영 교수가 10가지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 집행에 있어서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심하지 않다. 증거 채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거나 법에 정해진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재판의 정의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가 실체를 지배한다’고 강조될 정도로 ‘절차 민주주의’(due process democracy)는 사법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등 국가운영 전체에서 필수적 요소다.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2심 판결과 현재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진보좌익

판사들의 활약에 초점을 맞춰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이재명 2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윤상현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바로 사법의 정치화를 지적한 것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나논란은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바로 법치주의 뿌리 논쟁이다. 히틀러의 나치즘 탄생의 근거가 된 ‘결단주의’ 이론을 제공했던 칼 슈미트의 법철학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전통적인 ‘법의 지배’ 이론을 따라야 할 것이다. 독일의 헌법학 대부인 칼 슈미트는 법 실증주의의 대가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법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인식이 그의 법철학 바탕이 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법체계를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마침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으니 좋은 기회를 맞았다. 모두가 심사숙고하고 시대적 사명을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대한언론인회, 일본언론과 교류

6월2~5일, 현지방문...언론문화 협력

대한언론인회 장석영 회장 등 국제교류단 일행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2025년도 국제 언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2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도쿄 및 오사카를 방문, 현지 언론사들과 교류협약을 맺는다.

교류단은 도쿄에서 NHK와 동경신문사를 방문해 현지 언론인과 언론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오사카부(府)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를 예방하고 언론을 통한 한·일 문화교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언론인회는 창립 후 지난해 첫 국제교류 사업으로 라오스를 방문, 수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문화체육관광부 포시 케오마니봉 차관을 예방, 한·라오스간 언론문화교류에 합의했으며, 이어 라오스 일간 영자신문인 비엔티안타임스를 방문, T·듀앙사방주필 겸 편집국장과 S·빌레이사크 부국장 겸 문화부장을 만나 대한언론인회와의 정보교환과 양국 언론인의 교류 방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참가신청 : (02) 732-4797 이지예 팀장, 4월 15일(화) 오후 5시까지

강창광기자 ‘패자의 인간애’

대한언론인회 제31회 ‘박용윤 보도사진 인간애상’ 수상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는 제31회 인간애상으로 강창광기자(한겨레, 얼굴사진)의 “패자의 인간애”(사진)를 선정했다.

수상작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대표 신유빈 선수가 출전한 탁구 단식 동메달전에서 일본 하야타 히나 선수에게 패배하고도 곧바로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격려하는 모습이다. 하야타선수는 한국선수의 이같은 태도에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박용윤 보도사진 인간애상〉은 사건, 사고 위주의 보도사진이 지면을 차지하던 시절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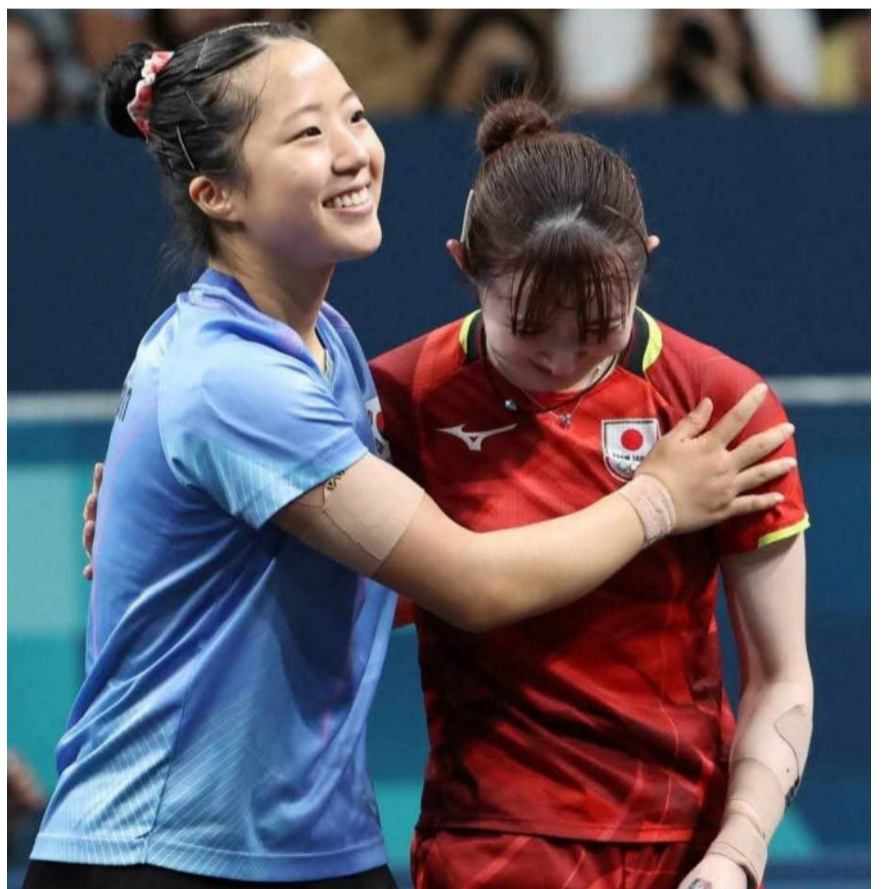


강창광 기자

사회를 만들려면 인간애(人間愛)가 담긴 사진이 많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전 동아일보 사진부 박용윤 기자가 사재 1억원을 출연해 만든 상이다.

이번 심사에는 윤석봉(전 동아일보 기자), 송영학(전 중앙일보 사진부장), 정재필(전 한국일보 주간여성 부장), 전민조(전 동아일보 출판사진부장), 이병훈(전 조선일보 사진부장), 강두모(전 국민일보 사진부장), 이규진(대한언론인회 사무총장)회우 등이 참여했다.

시상식은 4월4일(목요일) 오전 11시 대한언론인회 회의실(프레스센터 1405호)에서 거행된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왼쪽)가 하야타 히나선수를 축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 한고비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판결...법조계 반발



이도선
본지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기사회생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이 131일 만에 완전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6·3·3(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판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대표는 일단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로 최종 확정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에도 파기환송심까지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게 마련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성사되더라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에 걸림돌이 될 일은 없다는 얘기다.

판결 직후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재판부는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무죄를 때리기로 미리 작정하고 억지 논리로 꺾었다고는 법조계 안팎의 부정적 평가가 만만치 않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호주 출장 당시 김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발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 여부다. 이 중 골프와 백현동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모두 무죄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故 김문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두 번이나 받은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이재명은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 대권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3월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

시절 추진한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비리가 문제되자 김씨가 중앙감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씨를 모른다고 잡아땀다. 자신의 역점 사업 핵심 실무자일뿐더러 대면 보고도 여러번 했고

장만 받아 들였다”는 검찰의 반발에 설득력의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100쪽 분량의 판결문이 법리와 상식을 배척하고 어떻게든 범법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궤변과 요설로 가득 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재판부는 한술 더 떠 말썽 많은 5년

간 모두 상급심에서 뒤집힐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판들도 공범들의 유죄가 입증된 터라 이 대표는 이래저래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이재명 일극체제’인 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사법리스크’ 여전 선거법위반은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할수도

호주 출장길에는 10여 일 동안 같은 카트 타고 골프 치고 낚시도 함께 한 김씨가 누군지 모르며 골프 친 기억도 없다고 시치미를 댄 건 새빨간 거짓말 말고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까지 준비해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빼도 박도 못하는 허위 사실 공표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인식’ ‘행위’ ‘의견 표명’ ‘과장’ 등 엉뚱한 단어들을 나열하며 무죄로 몰고 갔다. 원본을 확대한 호주 출장 사진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20여 명의 증언은 모두 묵살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골프와 백현동 관련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대표의 주장을 복붙(복사해서 붙임)한 판결문”이란 비아냥이 쏟아지고,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

전 대법원의 ‘이재명 판례’를 소환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거짓말에 면죄부를 줬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받은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지사직은 물론 대선 출마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7월 “TV 토론에서 한 소극적 거짓”이란 기상천외한 논리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덕분에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그때의 고약한 판례를 이 대표에게 재차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오만무도와 후안무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기뻐하기엔 아직 이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가 받는 5개 재판 중 2심 결과가 나온 첫 재판일 뿐이다. 위증교사 사건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심 심리 중이다.

1심, 2심에서 각각 무죄가 나온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

주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심 판결로 선거판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한다면 가짜뉴스나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선거는 더욱 난장판이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해질 것이다.

굳이 법정시한까지 끌 것도 없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판결할 수 있는 파기자판(破棄自判형소법396조) 권한도 갖고있다. 최대한 빨리 엄정한 판결을 내려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부 ‘정치 판사’의 못된 짓거리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왜 유독 이 대표만 거짓말 의혹이 잇따르는지 냉철하게 생각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가리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거짓말쟁이 범죄자를 국가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선관위-헌재-법원 ‘한통속’인가?

헌재의 ‘선관위는 감사 영역’ 결정...무책임 표본



장석영
본회 회장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의 줄탄핵 심판에 가려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중앙선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7일 재판장 8명 만장일치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맞는 결정이냐는 것이다. 그 날은 공교롭게도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 특혜 채용이 878건이나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던 날이었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 영역’이라고 선언한 것인데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는 그 같은 결정의 이유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으면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무리한 해석이고, 현실에 눈감은 판단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사무에 국한해야지 채용 업무까지 감사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선관위 감싸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 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재직 때 지역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주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했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지원장 또는 지법부장판사 시절 강릉시·공주시·평택시·제주시·음성군 선관위원장을 맡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돼 있으나 대법관이 관례로 맡아왔다. 광역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원장 또는 지법부장판사가 맡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게 됐고, 여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자신의 아들·딸 등을 규정을 바꿔가면서 특혜 채용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에 대규모로 경력직을 채용했으며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이 있다는 투서가 들어오자 ‘문제없음’으로 종결지은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가 자녀 채용 사실 등을 계속 작성, 관리해오면서도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음도 밝혀졌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부정비리의 온상이 된 선관위를 두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규정은 ‘예시적, 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헌재 재판관 8명중 6명 지역 선관위원장 지내 ‘채용 비리의 온상’ 선관위, 감사원 감사 제외 문제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여하튼 선관위가 부정선거 혐의자를 고발, 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해당 법원의 최고 책임자이자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법원장이나 지원장이다. 수사, 기소기관과 고발, 재판기관이 한 몸이나 다름없다. 봉건 왕정 시대의 ‘원님 재판’이 이뤄진다는 말이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와중에 선관위와 헌재의 ‘카르텔’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이 조기에 결론났을 경우 이같은 ‘비리 복마전’은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도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선관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부정선거’에 대한 조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론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선관위와 헌재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법기관 전체에 대한 수술론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감사원은 지난 2월27일 선관위의 인력관리실태보고서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291차례였으며, 이 과정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규정위반은 중앙선관위에서 216건이 적발됐고, 나머지는 662건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발생된 것이었다. 장·차관급의 선관위 전

그러나 추가로 나열될 사실들이 많다면 예시적 운운이 설득력이 있지만 선관위 하나만 빠진 것을 ‘예시적’ 운운 하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법조계는 “헌재가 선관위를 영역으로 만들었다”면서 “헌재가 법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관위 요직을 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겸직하고 선관위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기용되는 ‘회전문 인사’가 선관위를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한 선관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행안부 소속으로 하는 게 부정을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80년 좌·우대립 ‘내란’ 끝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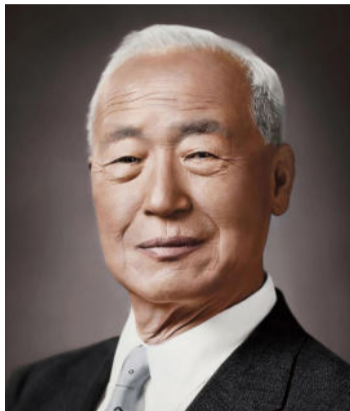
586 운동권 세력, 6공화국 정체성 흔들어

2025년은 대한제국을 일본이 보호국으로 규정한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을 발표한지 120년 되는 해이며,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한반도가 분단돼 좌우 이데올로기 다툼과 체제 전복 내란에 시달리기 시작한지 80년 되는 해이다. 1960년 4월26일 이승만 하야,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시해, 2017년 3월10일 박근혜 탄핵에 이어 2025년 ‘12·3계엄 윤석열 탄핵 판결(?)’로 80년 좌우 극한대립과 체제 전복전은 일단 대단원의 막은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해방 공간에서 시작된 좌·우 이념대립의 ‘내란’은 이재명과 윤석열 사법 판결로도 수습될 것 같지 않다. 제 1야당에 적지 않은 정치범·선거사범·국가보안법·불법선거자금 수뢰법에다 사기범 등 잡범들까지 득시글거리고 사법부까지 주사파에 오염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3명의 대통령이 수감된 6공화국을 ‘체제전복전쟁 법정’에 소환, 국가 존망의 위기 진단과 그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올해는 이승만 탄신 150주년, 서거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승만 결단으로 대한민국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출범한 140여 신생 독립국가 중 제일 먼저 선진국에 진입했다. 1945년 건국에 나섰던 위구르족·쿠르드족은 지금도 독립을 위해 투쟁 중이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을 돕는 원조국가 대열에 합류했으며, 교역량이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문화교류사업으로 남북 인사들이 만나 많은 주제를 토론하고 헤어질 때 북에서 온 점잖은 사람이 내게 귀엣말로 “당신들은 줄을 잘 썼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남한의 발전에 놀랐던 북한 인사도 인정한 이승만을 “통일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킨 독재자”라고 주사파들은 비방하고 있다. 제 1야당대표 이재명은 “대한민국 수립은 친일세력과 미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선동했다. 이재명은 6·25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고, 6공 3명의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하며 역사교육을 왜곡했다.

‘위험한 혁명론’ ‘환상적 평화통일론’을 내걸었던 586(1980년대 대학



체제전복 전쟁을 이겨낸 대통령들(왼쪽부터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

생·1960년대 출생)운동권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제 6 공화국은 정체성·사회윤리가 뿌리째 뽑힌 시대였다. 분열의 정치로 헌정질서·정체성·정통성이 허물어지고 분노(ressentiment)·좌절감만을 확산시켜 사회는 아노미 상태다. 586은 갈라파고스 섬의 동물처럼 퇴역화된 의식으로 그들이 진리라고 맹신하는 도그마

승만이 요구하는 한·미방위조약 체결안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함참에 상신, 클라크 중재안이 채택되어 전시 중 한·미 국익싸움은 수습됐다.

목숨을 건 벼랑끝 외교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자 이승만은 “우리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 이 조약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며 다중적 가치가 있는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한·

아이젠하워가 한·일 관계개선을 제의하자 “내가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일본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감정을 노출한 것은 지나쳤다. 이승만은 미국식 의회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범으로 삼아 미국 자본주의 경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의 좌파·유대계 언론·CIA는 이승만을 혐오해 그것이 이승만 비판의

사법·선거·정당·교육 등 국정전반 쇄신해야 야권, 분열정치로 헌정질서 후퇴·정통성 위기

를 위해 맹목적으로 돌격하고 있다. 이들이 대통령실·행정부·군·안기부·국회·교육계·노동계는 물론 언론계·법조까지 파고들어 국가의 안위가 위협수위를 넘어섰다. ‘12·3 계엄사태’ 이후 우리법연구회 법조인파와 주사파 정치인들은 가면을 벗고 체제전복전의 혁명투사로 나섰다.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통령의 이상한 회담을 TV로 보며 6·25 전쟁중 목숨걸고 미국과 국익 싸움했던 이승만대통령이 떠올랐다. 종전을 서두르던 미국은 종전을 반대했던 이승만 대신 장면으로 대통령을 바꾸려고 했다. 이때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선우종원 장면 비서실장, 아용문 육본작전국장(박정희 작전국차장) 등의 쿠데타 계획을 군첩보대가 포착해서 부산정치파동으로 대통령 교체는 일단 막았다.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 집행영장”이라며 이승만이 휴전을 계속 반대하며 반공포로를 석방하자 테일러 미8군사령관이 만든 ‘에버레디 플랜’(미군의 쿠데타)과 함께 이

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 동시에 미국이 10억달러를 경제 원조해서 한국은 전후 복구와 산업화 기초를 다졌다.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해외시장 개척, 대기업조성, 조선사업과 원양어업 지원, 원자탄 제조와 핵연구 착수, 관광사업, 치산치수 관개사업, 아파트건설 등이 시작되었으며 이박사 밑에서 이 일을 검토했던 관료들이 박정희 산업화 참모로 참여, 대한민국 산업근대화를 추진했다. 한국군은 6·25전쟁 전 10만에서 7배인 70만 강군으로 성장, 해외 파병에도 나서게 된다

전후 1954년 7월 미국을 국민 방문한 이승만은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이젠하워가 겁먹어 다 이긴 전쟁을 포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의 인정을 받았으며, 6·25전쟁에 유엔군 참전, 이승만 라인 선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탁월한 외교 수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54년 7월 29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천이 되었다.

박정희는 닉슨 독트린 선언 후 핵무기 개발 중 카터와 다투다 비명이었다. 박 정권 말기 김진만 이병욱 부정 사건을 수사했던 사정특보가 측근 부패 척결 등 대규모 개혁을 건의했으나 박정희는 미봉책으로 기피하다 측근에게 시해 당했다. 5공 전두환 정권도 나라가 안정되자 정치 정상화를 모색했으나 TK 참모가 이 계획을 노태우에게 알려 정호영의 군정지속론에 밀려 전두환·노태우가 수감되고 조폭·양아치·모리배가 설치하는 후진 정치로 후퇴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12·3 계엄사태’는 6공화국 모순 체결의 절호의 기회다. 탄핵사태가 진정되면 정당·법조·군·국정원 등을 손보고 사법제도, 선거제도, 교육제도 등 국정 전반을 쇄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 ☐

박석홍(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특파원 수첩 도쿄 ③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본 언론

1987년 북한 김만철씨 일가, 日망명사건 반응



정용석
본회 유튜브 위원
전 KBS 도쿄특파원

87년 1월 23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여의도의 KBS본사에 출근했다. 먼저 출근한 후배 기자가 화급히 나에게 달려와 회사의 출장명령을 전해 주었다. “정 부장님, 오늘 일본으로 출장 떠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김만철 일가의 일본 망명사건이 일어난지 하루 뒤였다. 7년간의 도쿄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서울 본사로 돌아온지 6개월이 채 안되던 때였다. 서둘러 여권을 챙기고 오후 비행기로 도쿄로 떠났다.

김만철씨 일가는 동해 쪽에 있는 쓰루가의 외항에 발이 묶여 있었다. 도쿄에 도착한 뒤 카메라를 챙겨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긴자 거리였다.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을 탈출해 일본 땅에 와 있는 김씨 일가의 망명사건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던졌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만났던 12명 모두가 “모른다”라는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모르다니, 어떻게 된 영문일까? 지금 서울에선 매일 1면 톱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니... 그 결론은 간단했다. 일본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긴자의 취재는 예상밖의 결과였다.

KBS 도쿄지국에 돌아오자마자 지난 3일간의 신문 스크랩을 뒤졌다. 일본 신문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조간신문의 2면 한 구석에 보일락 말락할 정도의 1단 기사였고 그것도 지방발 기사니 잘 보일리가 없었다.

일본의 6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지방발 1단 기사라도 다룬 곳은 마이니치 신문 한군데였고 그것도 지난달 기사니 잘 보일리가 없었다. TV의 경우 아사히TV가 단신으로 취급했을 뿐이다. 나머지 5대 종합지와 TV는 묵살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알리가 없었다. 서울에서는 매일 톱기사로 다루



김만철씨 일가 탈북은 동해 바다를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 기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일본 언론은 침묵했다. 사진은 한국에 도착한 후 환영받는 모습이다.

고 있었는데 일본의 언론들은 왜 이토록 다루지 않았을까?

그 배경은 7년간 필자의 도쿄특파원 생활 경험에 비추어 쉽게 이해할 만 했다. 일본의 언론들이 또 뭉쳤던

드(기사화 하지 않음)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소식통이나 고위관리의 말인 것처럼 인용,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이번에도 담당과인 북동아시아과의 관계자가 나왔다.

때, 일본의 언론들이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60억 달러를 요구하니, 터무니 없는 수치라는 논조였고 그 당시 외상이었던 소나다 스나오 씨는 60억은 “돈부리 계산서”(장부도 없이 적당히 주먹구구로 계산한다는 뜻)라고 했고, 일부 일본의 언론들은 “돈부리 계산”을 제목으로 뽑았을 정도였다.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검정은 일본 정부가 할 일인데 왜 남의 나라가 떠드느냐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정부쪽이 아니라 언론들이 먼저 들고 나왔다. 국제 문제를 다룰 때, 일본 언론들은 반드시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국가 이미

지 손상 여부를 먼저 고려했다. 이야기는 다시 청진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만철 가족 뉴스는 근 열흘간 일본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가 제 3국으로 가게 될 것

국제문제 보도에 ‘정부 가이드라인’ 따라 日역사교과서 파동때도 日정부 대변인 역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뒤에서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 배후를 취재해야 했다.

먼저 한국통으로 알려진 언론의 데스크를 만나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엔 외무성 담당자를 만나면 그 해답이 쉽게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통의 데스크는 모두들 나하고는 구면이다. 쉽게 만났다.

요미우리, 마이니치, 교도, NHK 기자들을 만난 결과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 쉽게 풀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사건을 남북한 관계를 감안해 볼 때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판단했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간주했다.

외무성은 정기적으로 주 1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었다. 이 간담회는 외무성 담당과장이 나와서 출입기자들에게 사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전망을 하는 자리였다. 원칙적으로 ‘오프 더 레코

이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망명사건은 남북한 관계를 볼 때 신경을 써야할 사건이다. 언론들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일본 언론들이 쓰는 기사는 여러분이 만들어 내는 작문이니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앞으로 보도 안하는 게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간담회의 결과는 출입기자를 통해 각 언론사의 데스크에 보고됐다. 일본 언론들이 국익을 앞세우고 침묵을 지키려는 것은 비단 이사건 뿐만 아니다.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애써 기사를 줄이려 했고,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한 줄도 안 쓰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아왔다.

한·일관계 하나만 보자. 60억 달러 대한경제협력문제가 처음 제기 됐을

같다는 기사가 조금씩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제 3국으로 보내려는 교섭이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슬슬 흘렸고 언론들은 이를 받아 조금씩 보도했던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들이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던 것은 이러한 제 3국과의 외교 교섭이 타결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정부가 언론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지시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협조요청’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국가이익을 내세우면서 언론 보도를 유도해 왔다.

국가이익을 내세우는 정부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일본 언론에서 흔치 않았다. 이러한 중요하고 미묘한 국제분쟁이 될 만한 뉴스를 보면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38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27

스탈린 계략에 金九 ‘건국반대’ 소동

대한민국 國父 이승만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기어코 평양가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겠노라.” 민족감정을 울리는 비장한 성명과 함께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1948년 4월19일 북한에 달려간 김구는 5월5일까지 무슨 일을 하고 왔던가? 그 ‘거룩한 남북통일협상’을 주

선한 남측실무책임자는 놀랍게도 거물 간첩 성시백,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나게 선동적인 호소문 ‘3천만동포에게 泣告함’도 성시백이 제공한 작품이란 기록까지 김구 측근이 남겨 놓았다. 진실의 타임머신을 돌려보자.

28) ‘자유통일 정부’ 수립, 산 넘어 산

◆이승만과 스탈린의 대결

앞에서 보았듯이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문제를 미·소 공동위 흥정에서 빼내 유엔에 이관시킨 것은 이승만 박사의 ‘정읍선언’ 전략의 성공이었다. 이에 즉각 대응한 것이 스탈린의 ‘민족통일전선’이다. 유엔이 결의한 ‘남북한 총선’을 거부, 이미 공산화를 완성한 북한을 지키려 유엔의 남북도 봉쇄하였으며 남한에 대한 화전(和戰)양면작전을 편다.

1948년 ‘2월 폭동’ 지령과 함께 4월 평양의 남북협상 쇼를 개최한 것, 그 남북한정치사회단체 연석회의는 해방 이듬해 출범한 북한 단독정권(임시인민위원회)이 전개한 민족통일전선 전략의 결과물이다. 김구와 김규식이 먼저 김일성-김두봉과의 ‘4金회담’을 요청하게 하여 자발적 참여 형식까지 갖추었다. 목적은 단 하나, 이승만의 ‘자유통일정부’ 수립을 봉쇄하고 스탈린의 ‘남한 공산화통일’을 완성하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꽃 피는 4월 남녘 제주도에서 폭도들의 광란(4·3사건)에 난자된 경찰과 양민들이 피바다에 나뒹굴고, 같은 시간대 버들가지 휘날리는 평양 대동강 극장에서 날마다 남북 정치쇼가 요란했다. 동유럽 점령후 착착 성공한 코민테른의 한국판 ‘민족통일전선’ 시나리오--총감독은 스탈린, 현장 연출책임은 ‘북한 총독’ 슈티코프(Terenty F. Shtykov, 1907~1964)였다. 주연배우는 물론 김일성인데 ‘심부름꾼’일뿐, 그보다 더 빛나야 할 인물은 백범 김구(白凡 金九)--스탈린이 북한 두목으로 김일성을 선택하였듯이 남한의 김구를 꼭 짊어서 ‘한민족통일의 주인공’이란 ‘1회용 주역’을 맡긴 것이었다. (소련 공개 극비문서들 ‘슈티코프의 일기’ 레베데프 비망록 등 다수 참조).

◆김구는 반공주의자

[백범일지]에 보면 “공산당을 여럿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소련 공산체제가 가장 무서운 독재”라고 규탄하기도 한다.



▲평양의 남북대회에 참석한 김구가 김일성(왼쪽)과 단독 면담하러 따라가는 모습.

특히 이승만의 ‘정읍선언’ 이후 공산측이 ‘분단의 원흉’ 운운 모략할 때에도 김구는 이에 대항하여 “대한민국 중심의 민주통일 뿐”이며 “강원도 산골에 단독정부를 세워도 그것이 한반도 중앙정부”라는 당론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승만에게는 “남산 소나무가 다 시들어도 형님에 대한 나의 의리와

◆김구-김일성의 만남

모든 것은 슈티코프와 레베데프의 각본대로였다. ‘협상’은 커녕 대화도 없이 결정된 문서들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일사천리 남북대회, 김구의 5분 짜리 연설에는 박수도 금지되어 있었다.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김구-김일성의 5시간 면담 내용은 뒷날 김일성이 밝혀주고 있다. 예컨대, 김구가



▲북한 김정일이 [로동신문]에 김일성의 김구활용 전략 내막을 폭로한 기사. 거물간첩 성시백의 활약을 보여준다. (1997.5.26.일자)

거부하고 건국을 반대했던 김구는 잠에서 깨었는가? 아니다. “이 단독정부는 불법”이라며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승인조차 반대하고 나섰다.

◆스탈린의 ‘김구 캐스팅’은 절묘했다

는 기록도 있다. 해방 후 귀국하자 “임정이 집권할 테니 미군정 물러가라”고 쿠데타를

이승만 박사 ‘정읍선언’ 대응...蘇, 남북협상 쇼 벌여 공산당에 이용당한 ‘김구 통일 투쟁론’ 아직도 잔재

굳은 소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까지 하는 김구였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돌변한다. 1948년 1월 22일 소련이 유엔의 입북을 거부하자, 그 다음주 김구가 “남한 단정선거 반대” 성명을 발표하더니 북한 김일성과 협상 통일하겠다고 나섰다. 경악한 우파진영은 김구를 ‘크레mlin공의 신자’라고 매도하였다.

“남산 소나무들이 다 말라죽은 모양”이라며 한탄한 이승만은 김구를 말했다. “갈 테면 모스크바로 가라, 통일문제는 스탈린과 담판을 해야지 그 하수인을 만난들 이용만 당할뿐”이라고 설득하였지만 허사였다. 이승만은 평생 김일성을 결코 공식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임시정부 인장(印章)을 김일성에게 바치려 했단든지, 여생을 보낼 과수원을 만들어 달랬단든지, 확인할 수 없는 밀담내용과 남북통일전선 드라마는 김일성의 저작물이나 영화, 또는 [로동신문] 특집기사(1997.5.26.)로 두고두고 선전되어 왔다. 아무튼 김구는 청년시절 결혼할뻔 했던 안신호(안창호의 여동생)를 데려다가 호텔수발까지 보살펴준 김일성의 환대에 호응하여 ‘남북조선 공동성명서’에서 명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귀환회견에서 “북한은 남침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송전(送電) 송수(送水)문제도 보장받았다”고 김구는 장담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며칠 후 남한에서 5·10총선이 성공리에 실시되자 주저없이 단전-단수를 감행한다. 총선을

기도했던 임정주석 김구, 상민출신의 계급증오와 복수의 폭력주의자, 근대 교육에 몽매한지라 공산주의 등 이론보다 수구적 애국심과 테러에 올인하는 행동파의 남다른 자질은 스탈린이 찾던 ‘남한과괴’ 통일전선의 안성맞춤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살아서 공산당에게 이용당한 김구의 ‘통일투쟁 신화’는 죽어서도 지금까지 친북통일세력의 아이콘으로 그 성가를 과시하고 있다. 이제 그만 ‘빛나는 독립운동가’의 자리에 조용히 모셔둘 때가 되지 않았는가. 스탈린과의 체제대결에서 승리한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앞당겨야 끝날 ‘건국전쟁’에서 70여년 시달린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하다. <계속>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정체성 확립 시급”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 변정일 대표 인터뷰



올해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이다 서거 60주년이 되는 크게 꺾어지는 해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독립투사로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1945년 해방이 되자 즉각 건국작업에 나서 1948년 자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을 성사시켰다. 1945~1948년 이른바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해방공간 기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산주의에 맞서 유엔의 우산 아래 단독정부 수립을 1948년 8월15일 선포하기까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게다가 1950년 북한 공산세력의 기습 남침이 있자 유엔의 힘을 끌어모아 나라를 지키고 한·미동맹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

입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부터 국가수립과 국가기반을 다지는 데 이르기까지 남다른 큰 공헌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國父)였다. 올해 탄신 150주년을 맞아 ‘이승만 건국대통령 동상 건립추진위원회’, ‘자유헌정포럼’, ‘대한언론인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트루스 포럼’ 등 22개 사회단체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독립정신과 건국정신을 선양하고 역사적 업적을 제대로 널리 알리기 위해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대표 변정일)을 결성기로 하고 지난 3월5일 여의도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다음은 변정일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註)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생 150주년 특집

세우는 것 못지않게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널리 선양해 모든 국민이 옹기 깨닫고 그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역사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5월 즈음 범국민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 명칭을 ‘이승만과 함께 걷기대회’라고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 남산을 거쳐 장충동의 자유총연맹에 이르는 4Km 구간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1만에서 1만5천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곳곳에서 이승만대통령을 알리는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을에는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바로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에 관한 책자를 우리가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책자를 읽은 학생들로 하여금 글짓기를 해서 우수 작

오늘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이 출범했는데 출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올해 탄신 150주년과 서거 60주년을 맞아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널리 알리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4·19혁명 이후 지난 60여년 간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작동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는 현실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된 현실을 생각하면 건국의 초심으로 돌아가 치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각성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재 정치상황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요즘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는데 웬 뜬금없이 이승만 바로 알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정치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이승만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좌익 세력의 공작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우 이념대립은 바로 이같은 역사적 뿌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역사 전면에서 소환해서 바로 제대로 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체명에 ‘바로알기’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너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 보고 친일 파라든가, 남북분단의 원흉이라든가, 6·25 전쟁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든가 (‘똥승만’) 등등 그동안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없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옳게 가르치고 했어야 했는데...하여간 지금 늦었더라도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 옳게 널리 알리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자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합니다. 번듯한 기념관과 동상 같은 조형물이 세워졌어도 벌써 세워졌

오늘날 정치상황은 좌익 세력의 공작서 비롯 기념관·동상없는 ‘건국 대통령’ 세계에서 드물어

건국대통령이라지만 기념관 하나 없고 번듯한 동상 하나 찾아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더라도 건국의 아버지에 대한 기념관이나 동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에 대한 대접이 너무 소

어야 하는데...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범국민적으로 힘을 합쳐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숭고한 노력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뜻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우리 노력을 알아주고 참여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인프라를

품에 대해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약 1만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옳게 알고 바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때 그때 다양한 행사를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반민법·평화선 누가 했나”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생 150주년 특집**

류석춘 교수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 출범식 강연 요약

다음 글은 지난 3월5일 국회 박물관에서 개최된 ‘이승만바로알기국민연합’ 출범식에서 이루어진 기념강연회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전 이승만연구원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註)



류석춘
연세대 명예교수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 출범식 및 기념 강연회 모습.

지에서 벌어진 일과 나치 치하의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을 비교해야 등가의 비교가 가능하다.

나치에 부여한 사람을 처벌한 전후 프랑스는 6·25 전쟁 직후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을 국군이 수복하고 나서 부여자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와 비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국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을 1·4 후퇴 후 북한이 되찾고 나서 국군 편에 섰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도 전후 프랑스와 비교할 수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여자가 없다. 1948년9월 건국과 동시에 공포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이하 ‘반민법’)은 무엇이고, 이 법에 따라 1949년 백두부터 반년간 온 나라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명씩 검거되는 친일파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기록은 무엇인가? 포승줄에 묶여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법정에서 출두하는 노덕술·김연수·이풍한 등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는 법 절차에 따른 청산이 또박 또박 진행되고 있었다.

그 결과 ‘총 688명 수사, 559명 특검 송치, 293명 기소, 재판종결 38명, 재판 결과 체형 12명, 공민권 정지 18명, 무죄 또는 형 면제 8명’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또한 ‘체형 12명 중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그리고 나머지는 2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집행유예’라는 결과도 나왔다. 아쉽게도 재판을 종결하지 못했거나, 체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남한이 불철저한 청산을 지향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일으킨 6·25 남침 전쟁 때문이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이 북한의 수중에 넘어간 기간이 3개월 가량 되었다. ‘반민법’ 시효가 6·25 발발 전 마무리되었지만, 형 소추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어 복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쟁 기간에도 감옥에서 법 집행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남한을 점령한 북한군은 감옥 문을 활짝 열어 죄수들을 풀어주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과업에 동참하라고 부추겼다. ‘반민법’ 수감자라고 예외였을 까닭이 없다.

6·25 북한 남침으로 반민법 처벌 완수 못해 전쟁중 ‘평화선’ 선포...독도·이어도 영토 편입

그러므로 남한의 친일청산이 법 절차에 따라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는 북한의 남침 때문이지, 일부에서 주장하듯 이승만 때문이 아니다.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자 처단은 민의, 법 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토록 하라”는 1948년 9월 24일 담화를 시작으로, 1949년 2월에 3번, 그리고 1949년 4월에 1번 ‘반민특위’ 활동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한꺼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보처, 1953, 『대통령이승만박사 담화집』)

이에 비해 북한은 친일파 처벌문제를 공산혁명 투쟁의 도구로 삼았기에 친일파라도 공산 소비에트화에 동참하면 잘못을 덮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친일청산의 기준은 공산화와 소련 식민체제의 구축에 협조하느냐의 여부였다. 일제에 협조한 사실이 있더라도 필요한 능력이 있거나 정권에 적극 협력할 경우 중용했다.

김일성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에 있어서 일체 기계적이며 공식적으로 되는 해석을 피해야 할 것이며, 8·15 이후 건국사업에 적극 노력하며 개과천선한 자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리를 할 것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라고 강조하였다.”(당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 결정서, 1946.9.25.) 공산화에 적

극 동조하면 친일전력이 문제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친일청산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 현대사를 흠집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요즘 주장하는 포인트를 바꿨다. 북한 대신 프랑스를 예로 들면서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나치 치하의 프랑스에서 부여하던 사람들을 전후 프랑스는 제대로 청산했는데, 일제 치하 조선에서 부여하던 사람들을 대한민국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 주장도 북한이 했다는 철저한 친일청산 주장 못지않게 황당한 주장이다. 비교의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치하 한 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반면에 나치 치하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지’였다. 식민지와 점령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범주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는 식민지와 비교해야 하고, 점령지는 점령지와 비교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된다.

6·25 전쟁 초반, 대한민국은 낙동강 이남을 제외하고 북한의 점령지였다. 반면에 9월 인천상륙작전부터 다음 해 1·4 후퇴까지 북한 대부분은 대한민국 혹은 UN의 점령지였다. 이 점령

있다. 이 비교를 수행한 연구를 알지 못하지만, 남북 모두 프랑스 못지않게 엄청난 처벌·보복을 했음에 틀림없다. 심지어 이 기간에 벌어진 일을 두고 일부에서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지 않나?

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인 1952년 1월18일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했다.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을 구분해 해양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주권이 미치는 ‘영해’의 경계를 선포한 통치행위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경계선이란 의미에서 ‘평화선’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이승만의 일방적 선포였기 때문에 ‘이승만 라인’ (Rhee Line)이라 부르기도 한다.

평화선의 경계를 살펴보자. 울릉도 동쪽 독도는 물론, 제주도 남쪽 이어도(파랑도) 해역까지도 평화선 안에 포함되어 있다. 즉 평화선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어도를 영토에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도 역시 영토로 확보해 지금까지 실효적 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리 : 이규진 총괄부회장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자유, 민주, 공화의 기틀 위에 세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의 나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선대들이 세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한 지 5개월, 오직 국민의 손으로만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고사리손의 꼬마 기부자부터 대통령까지 각계각층의 국민께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념관을 적기에 건립하여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및 발전사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이 과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습니다.

모금 계좌 (예금주: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농협	301-0334-1185-31	국민	815601-04-182916
우리	1005-104-553918	하나	109-910035-23404
신한	100-036-637911	새마을	9002-2034-6284-4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김항식
 고문 | 박지만, 노재헌, 김현철, 김홍업
 추진위원 | 김군기, 김길자, 김명섭, 김석규, 박유재, 복거일, 손병두, 신영균, 신철식, 안병훈, 이영일, 이영훈, 이운생, 이인호, 이장호, 이진만, 이창진, 인보길, 정용상, 조보현, 주대환, 한용외, 한화갑, 황성욱



#<건국전쟁>의 감동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액 100억 돌파!



*홈페이지 후원 환영 www.이승만재단.com
 네이버, 구글에서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을 검색해 주세요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유일한 공식 모금 기관입니다
 *후원자 예우 등을 위해 후원하신 후 이메일로 (donation@rheesyngmanfoundation.or.kr)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77.0391

한국 반도체 산업 ‘트럼프 외압’에 큰 위기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반도체법 폐기선언 대응책 고심

경제 포커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 지원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일명 칩스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도체 기초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뉴스까지 전해졌다. 이에 한국의 자존심 글로벌 1.2위 메모리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휘청이고 있는 느낌이다. 더구나 한국 수출을 대표하는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간의 정부 리더십 공백과 트럼프 발 통상위협 등 내외외환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동력마저 꺼져가고 있다는 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반도체 기술 중국에 따라 잡혀...기술력과 인재부족 탓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내놓은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집적 저항기반 메모리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기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 ▲전력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 반도체 5개 분야의 기초기술 수준이 모두 중국보다 낮다는 평가다. 이들 분야는 불과 2년 전인 2022년 진행된 기술수준 평가에서 모두 중국에 앞섰던 터라 더 충격적이다. 미래 반도체 산업의 바탕에 해당하는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뒤졌다는 것은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에 계속 밀릴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이같은 배경으로는 기술력과 인재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산업 스파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한국의 핵심기술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빠져 나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최근 적발, 발표한 ‘해외 기술유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총 27건에 달했다. 이는 국수본 출범 이래 최다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전경.

건으로 가장 많고,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수위에 랭크됐다.

청천벽력 같은 트럼프의 반도체법 폐기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사는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양사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Foundry) 경쟁사인 대만의 TSMC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美정부 보조금 중단...兩社, 현지공장 건설 계획 차질

AI 메모리 한·미 공동개발 등 협상카드로 검토해 볼만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않고 있다”며 “반도체법과 미지급 돈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협박으로 한국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70억 달러(약 53조원), 38억7000만 달러(5조6천억원)를 투입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와 협상해 각각 47억4,500만 달러(6조8,700억원), 4억5,000만 달러(6,200억원)의 보조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양

에 굴복해서인지 1,000억 달러(145조원)를 미국 내 공장건설에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 더욱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양새다. 이렇다간 그동안 힘겹게 일궈놓은 파운드리 시장을 TSMC에 몽땅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9%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현재 점유율 67%) 등에 밀려 현재는 불과 8%대로 주저앉았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엔 트럼프의 반도체법 폐기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난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일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에 민감한 만큼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라인 폐쇄나 축소, 고성능 인공지능(AI) 메모리 한·미 공동개발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해 볼만하다.

미국과의 협력관계 지속하고 새 시장 개척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정책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그의 공언대로 반도체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부과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혀지긴 하지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미·중 패권경쟁은 양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국회가 지원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50조원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내용에는 ▲세액공제 폭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시설투자 확대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현재 한 자릿수

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스템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10% 대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제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이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세제 지원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세액공제 폭 확대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세금감면 혜택 범위를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R&D 투자가 원활해져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트럼프의 반도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 그리고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되겠다. ☞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한국 체육계에 신선한 혁신바람 분다

이종세 본회 부회장

신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인터뷰

40대 초반의 젊음 때문일까? 한국 체육의 총본산인 대한체육회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의 행보가 지난 8년간 한국 체육을 이끌었던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 시절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취임 한 달도 안됐는데 유 회장은 한국 체육의 변화와 혁신을 향해 불도저처럼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한체육회 105년 역사상 처음 여성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파격'을 보였다. 그리고 그동안 금기시했던 지도자들의 선수촌 음주를 허용하는 등 발상의 대전환도 선보였다.

유 회장이 지난 1월 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당선인 영예를 차지하자 체육계에서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등 부정적 시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40대를 일컫는 '불혹(不惑)'은 한창 일할 나이. 상징적인 실례로 1917년생 동갑인 박정희와 미국의 존 F 케네디는 44세 때 대통령직에 올랐다. 1970년대 우리나라를 휩쓴 '40대 기수론'의 주역 역시 김영삼(당시 42) 김대중(45) 이철승(48)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60~70대가 이끌었던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의 등장으로 20년 이상 젊어진 불혹과 지명(知命 50대)의 세대가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게 됐다.

“지도자들 선수촌 음주 가능”

지난 3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대한언론인회 사무실.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유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화법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3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가진 '대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필자의 질문에 진지한 표정으로 응답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변영욱기자)

으로 앞으로 한국 체육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게 “당면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즉각 “내년 2월의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9월의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잘 준비해야 하며 2028 LA 올림픽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친전 선수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종목 지도자들이 음주를 위해 외부로 나가는 것 보다 선수촌에서 캔맥주 같은 음료를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주(禁酒) 구역으로 여겨왔던 선수촌에서 음주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발상의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선수촌장에 김택수(55) 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분은 제가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에서 우승할 때 코치이셨습니다. 내년 동계올림

픽, 아시안게임, 2028년 LA 올림픽까지 한국선수단을 잘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 선수촌장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김택수 총장에 대한 신뢰감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 안살림을 도맡을 사무총장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출신인 김나미(54) 전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을 발탁한 것과 관련, “김 총장님은 동계종목 전문가로 국제스포츠계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고 향후 한국 체육 발전과 주요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회장은 지난 2월 28일 취임 첫 인사에서도 기획조정본부장에 김보영, 신설 마케팅 실장에 오지윤 등 13명의 여성을 부장급 이상 간부로 과감하게 중용했다.

공정위에 ‘회장 입김’ 차단할 계획

유 회장은 그동안 말썽 많던 스포

츠공정위를 대한체육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도 진행중이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 2월 24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규정상 2연임까지는 하고 3연임은 스포츠 공정위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나는 재선을 끝으로 3연임은 없애려고 한다”며 이기흥 전 회장 때와는 전혀 다른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의 이 같은 의중을 감안해 공정위 개혁의 핵심이 인적 쇄신에 있다고 판단, 공정위원 선정에 회장의 입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선거 달인’→‘행정 달인’변신 기대

하지만 유 회장에게도 당면과제가 있다. 사제지간이라 할 수 있는 김택수 총장과 유 회장의 관계 설정이다. 게다가 오랜 해외생활로 국내 사정에 생소한 김나미 사무총장의 제한된 행동반경, 여성 중용의 인사로 인한 남성 직원들의 사기 저하, 생활체육협의회 출신들의 전진 배치 등 유 회장의 신속하고 거침없는 인사가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8년 임기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당선, 2019년 대한탁구협회 회장 당선, 2025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 등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어온 유 회장이 ‘체육 행정의 달인’으로도 평가받아 한국 체육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면 한다. 젊음을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가 아닌 기존의 위계질서도 고려하는 차분하고 신중한 체육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종세(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체육공단 “올해 1조 3215억 지원”

생활체육 등 민생 경제 활성화 도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사진)은 최근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투자·융자·출자금 포함) 1조 6153억원 중 체육 분야 보조금으로 총 1조 321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 1989년 설립 이래 36년간 약 19조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 재정의 98%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지원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생활체육 육성에 5295억 원, 국가대표 선수 등 전문체육 육성에 4336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1278억 원,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에 1153억 원, 장애인체육 육성에 1153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체육공단은 정부의 재정 집행 계획에 발맞춰 올 상반기 집행 목표를 72.6%로 설정하고 조기 집행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예술인 그 삶과 예술혼 ㉓

한국영화의 전설 **신상옥** 감독

‘한국의 할리우드’ 신필름 1960년 창립



신상옥 감독.

1960년대 한국영화 중흥기를 이끈 신상옥 감독은 정부명령으로 영화사를 문 닫는 수모를 당하고, 납북, 극적인 탈출, 미국 망명, 귀국 등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지만 영화 입문 이후 죽을 때까지 그 만큼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위해 온 몸을 투신한 영화인은 없었다. 1952년 피란 수도 부산에서 양공주의 애환을 그린 ‘악야(惡夜)’로 감독 데뷔한 신상옥은 1960년 자신의 영화사인 신필름을 설립했다. 신필름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형태에 가장 가까운 한국의 첫 번째 영화사로 서울 원효로에 스튜디오를 건립했고, 몇 년 후에는 경기도 안양에 현대식 영화제작 시스템을 완비한 종합촬영소로 확장했다.

신상옥은 미국 콜럼비아 영화사를 모델로 전속배우, 감독, 작가, 촬영, 조명, 녹음기사는 물론 진행제작부까지 영화제작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시설을 자체 조달했다. 부인인 최은희, 김승호, 신영균, 이예춘, 남궁원, 태현실 등 당대의 최고의 배우들이 신필름 전속배우로 활동했다. 안양종합촬영소는 1천평 규모의 촬영스튜디오와 녹음실, 편집실, 영사실 등 시설은 물론 부설 연기자 양성소까지 거느릴 정도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신필름 이름으로 제작한 작품은 102편이며 산하인 안양필름(신 감독 형인 신태선이 사장)이 제작한 영화까지 합치면 150편에 달했다. 신상옥은 1960년 ‘로맨스 빠빠’에 이어 1961년 ‘성춘향’의 흥행대박으로 기반을 잡고 영화사 규모를 키워서 전성기엔 상근직원 수가 200명, 전속배우가 70명이었다.

1950년대에 데뷔한 신상옥, 김기영, 유현목 세 감독은 1950년대 동란



신상옥 감독의 1960년 <로맨스빠빠>. 왼쪽부터 최은희 신성일 남궁원 도금봉 김진규 엄앵란 주중녀 김승호. 당대의 스타들이 총출연 해 흥행에 성공하고 신감독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 성장기를 지나 1960년대 한국영화 중흥기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단순한 영화감독의 범주에서 벗어나 영화작가로서의 의욕적인 예술 활동을 보여줘 사후에도 한국영화의 ‘레

을 수상한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이슬람 율법과 정부의 규제가 심할수록 내 예술 표현의 방법은 심오하고 정교해 갔다. 어떻게 생각하

삶을 내용으로 한 ‘지옥화’를 제작·감독한다. 신 감독은 데뷔작에 이어 왜 연속으로 사회의 밑바닥 인생인 양공주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의 잠재된 사회의식인가, 아니면 단순한 흥행논

‘로맨스 빠빠’ ‘성춘향’ 등 10년새 영화 150편 제작 아내 최은희, 김승호, 신영균 톱스타 전속 배우로 활약

전드’(전설)로 추앙받는다. 사회적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 말기, 장면 정권의 짧은 혼돈기를 거쳐 박정희 군사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와 통제의 문화정책 체제에서도 이들 세 감독들의 작품 활동은 그들의 감독생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진지하고 빛났다.

일종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예술가의 창작은 체제를 초월한다는 명언이 떠오른다. 구소련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와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같은 시대의 아픔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는가. 물론 요즘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더 바랄 게 없지만 한 때 일부 영화인들은 정치체제의 강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항변했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아직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이란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유명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면 규제가 창작의욕을 더욱 솟구치게 했다”고 말했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이 발언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수긍한 게 아니라 창작 활동은 작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는 우회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상옥은 1926년 10월 18일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지만 유년시절은 회령시와 경성군에서 보냈다. 경성(鏡城)보통학교와 경성중을 나와 도쿄 제국미술학원을 다녔다. 미술학원을 중퇴하고 1945년 해방직전 귀국했다. 1946년 서양화가로 화단에 등단한 적이 있다. 1948년 최인규 감독의 ‘희망의 마을’과 1949년 홍성기 감독의 ‘여성일기’ 미술감독을 거쳐 그해 최인규 감독의 ‘파시’ 조감독으로 영화감독에 입문했다.

6·25동란 때는 전쟁 다큐멘터리 촬영기사로 종군한 신상옥은 1952년 ‘악야’를 제작하고 정식 감독으로 데뷔했다. 양공주의 원색적인 생활과 어두운 면을 통해 인간의 허무를 그린 영화로 문정숙 이민자 황남 등이 출연했다. 신상옥은 1958년 또 양공주

리인가. ‘지옥화’는 양키물건 장수와 양공주의 부조리한 생활 속에서 짝퉁 두 남녀의 비극적 사랑의 종말을 그렸다. 사회 밑바닥 인생인 양공주의 진실한 사랑이 주제였다. 양공주 역을 최은희가 맡았다. 두 편의 양공주를 주제로 한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이 작품을 계기로 두 사람은 영화와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과 애증관계는 18회 최은희 편 참조)

그러나 ‘지옥화’를 만든 1958년 신상옥은 ‘어느 여대생의 고백’을 제작·감독해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당시 32세의 최은희는 주연인 여대생 역을 맡았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법과대학을 다닌 여대생이 친구의 동정어린 연극으로 고명 집 딸로 변신, 변호사가 되어 여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내용의 페미니즘 영화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서 신 감독은 지방 흥행사들에 인기 감독으로 부상했고 경제적으로도 허리를 폈다.☞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세상 그 무엇도
신뢰와 바꿀 수 없기에
NS가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당신을 신뢰합니다

 NS홈쇼핑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1954년 ‘피꼬리 가수’ 백설희가 불러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4>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은 왜 그렇게 내리던지. 이제 그 겨울도 가고 기다리던 봄이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는 풍경은 여전히 거칠고 욕심스러운 겨울이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는 알뜰한 맹세’는 찾을 길이 없고 ‘알뜰한 맹세’는 ‘무’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어수선한 시국이다.

6·25의 포성이 멎은 1954년, 대구의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봄날은 간다’라는 유행가가 탄생했다. 손로원의 노랫말에 박시춘이 곡을 쓰고 백설희가 노래했다. ‘봄날은 간다’는 그 후, 72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국민가요로 애창되고 있다. 한 곡조의 노래가 시대와 세대를 넘어 긴 세월 사랑받는 생명력은 무엇일까. 한 번쯤 짚어봐야 할 이 시대의 주제가 같은 생각이 든다.

‘봄날은 간다’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고 노래한다. 같이 웃고 같이 울던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정인(情人)일 수도, 우리 사회 모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라가 온통 “웃고름 씹어가며 꽃 편지 내던지고/ 양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작로 길에...” 내뿜겨 쳐져 있는 형국이다.

‘봄날은 간다’는 영화, 연극, 드라마, 시, 소설, 뮤지컬, 미술작품, 악극, 웹툰 등 모든 장르의 예술작품으로도 만들어졌다. 문화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로라 하는 가수들이 각인각색의 해석으로 ‘봄날은 간다’를 리메이크해서 부를 만큼 ‘가수들의 애창곡’이기도 하다. 나훈아, 조용필, 최백호, 이미지, 주현미, 아이유 등 K팝의 MZ들까지도 노래한다. 부르는 가수에 따라 노래가 얼마나 다른지, 가슴 찡한 열창들이 많다.

2004년 봄, 계간지 ‘시인 세계’가 한국 시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봄날은 간다’는 ‘시인들이 뽑은 한국 대중가요 최고의 노랫말’로 선정되었을 만큼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문인수 시인은 ‘봄날은 간다 4절’이라는 시를 유작 시집에 남겼다. 여행 중에 누이들이 창가에 기대어 ‘봄날은 간다’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썼다고 한다.

2001년 허진호 감독의 영화 ‘봄날은 간다’는 닳고 닳은 이혼녀 은수(이영애 분)가 상역(유지태 분)을 만나 “라면 먹고 갈래요?”라고 유혹하고 차버린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찾아와 “우리 같이 있을래?”하고 상역의 팔장을 낀다. 상역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하고 거절하는 대사가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가수 백설희(본명 김희숙, 1927~2010)는 1943



생전의 백설희와 아들 전영록이 함께 노래하고 있다.

년 조선 악극단의 가수 겸 배우로 데뷔했다. 1950년 ‘피꼬리 강산’으로 레코드 가수가 되고 ‘봄날은 간다’로 ‘한국가요사 최고의 피꼬리’라는 명성을 얻었다.

1960~70년대 인기 액션 배우 황해의 부인이고 1970~80년대 청소년의 우상이었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종이학’의 가수 전영록의 어머니다. 1980년쯤 어느 날 전화도 없이 백설희씨가 편집국으로 찾아왔다. 전영록의 얘기를 했다. 정이 깊은 어머니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피 피지더라/ 오늘도 양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작로 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알뜰한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나는 이 3절이 ‘봄날은 간다’의 임팩트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봄날 열아홉 시절이 황혼 속에 흘러온 회한을 기막히게 은유한 열창이다. 어찌면, 이 글을 쓰는 나나 혹시 읽으시는 회우들, 누구의 가슴에도 와 닿는 노래가 아닐까. 뒤늦게 대한연론인회에 들어

‘갈등과 분열’ 정치판... 절제·포용력 절실 회한을 아는 여백의 정치가 그림다 시인들이 뽑은 ‘한국 대중가요 최고의 노랫말’

였다. 여성 그룹 티아라의 멤버 보람이 전영록의 딸이다.

작사가 손로원(1911~1973)은 연희전문 문과를 나온 시인이다. 일제 치하에서 절필을 하고 전국을 떠돌며 술을 마시고 방랑 생활을 하는 손 샷갓으로 살았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이 돌아 올 날만을 기다리던 그의 어머니는 열아홉 살 시집을 때 입었던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아들 장가갈 때 입겠다고 간직했다.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손로원은 1953년 부산 영주동 판자촌 대화재 때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고 찍은 어머니의 영정이 불에 탄 회한으로 ‘봄날은 간다’의 노랫말을 썼다고 한다.

작곡자 박시춘(1913~1996)은 두말할 것 없는 한국 트롯의 아버지이다. 단신에 말수가 적고 온화하고 유머가 있는 좋은 사람이었다. 바다낚시를 즐겨 필자가 풋내기 기자 시절 그의 낚시 취미를 취재했다. 평소에도 가끔 만나곤 했다. ‘봄날은 간다’는 대중가요의 3대 요소인 작사, 작곡, 가창의 세 분야가 조화와 협력으로 이루어 낸 “세 박자 쿵 짹”이다.

‘봄날은 간다’는 3절까지의 가사가 있으나 러닝타임 때문에 가수들이 보통 2절까지만 노래해 3절은

와 두어 번의 문화탐방과 잠깐의 여행에서 장식영 회장과 회우들의 모습을 보았다. 절제하고 배려하는 포용력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다. 우리 정치도 절제와 배려, 때로는 회한을 알고 질 줄도 아는 여백과 포용력의 덕목이 절실하다.

아름다운 회한은 유자호 시인의 ‘추석’과도 일맥상통한다. “나이 스نی이 되어도/ 어린 시절 부끄러운 기억으로 잠 못 이루고// 철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린/ 어머니,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깊은 밤...” 회한을 아는 여백의 정치가 진정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는가.

지금 세계는 경제, 문화의 전쟁터다. K팝이 세계를 정복하고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문학이 노벨상을 받고 재계도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치만 갈등과 분열, 고성인 우주선급이다. 정치도 화합과 협력의 종합 예술로 승화되어야 한다. 어떤 우월한 날이면 나는 덧없이 꽃잎 지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나 허무했던 권불십년(權不十年)의 역사를 생각한다. 봄날은 가고 순간 이더라. ☹

신대남(본회 회우·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강원도 강릉에서는 해마다 동예의 무천 축제를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 옥천에서 재현된 부여 영고 축제 모습.

“한민족 고유 ‘풍류정신’으로 국정혼란 이기자”

황원갑의 史談史話

현실의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 역사연구가

우리 겨레의 풍류정신(風流精神)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풍류는 신명과 정한을 양대 축으로 하는 민족정신사와 통한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학문을 사랑하고 무술을 숭상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웃과 화목할 줄 아는 아름다운 기풍이 있었다. 또한 착한 행실을 권하고 나쁜 소행을 삼가는 것이 사람의 바른 도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모두 단군 왕검(檀君王儉)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 민족 고유의 풍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풍류는 단순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거나, 남녀 간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고조선 이래 열국 시대를 거치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근원이 하늘과 태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천신(天神)에게 제사지냈으며, 천지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우리 민족은 천손족(天孫族)이다. 하늘의 자손이요 해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우리 겨레가 고조선 이래 하늘-하느님을 최고신으로 받들고 백성이 모두 모여 하늘에 제사지내며 춤추고 노래하며 공동체 의식, 집단의 유대를 다진 까닭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손, 곧 천손족이란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옛 기록에 이를 부여에서는 영고(迎鼓),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 동예에서는 무천(舞天)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명칭이 전해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늘과 조상신에게 감사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은 뒤에 노래와 춤으로 결속을 다지려는 이러한 공동체의 축제는 고조선 이전 원시 부족시대부터 있었을 것이다.

부여의 축제인 영고는 해마다 본격적인 사냥철이 시작되는 12월에 베풀어졌고,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에 나라(도읍지)의 동쪽에 있는 수혈(隧穴)이라는 동굴에서 조상신을 모셔온 뒤 동맹이라는 국가적인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또한 동예에서도 해마다 수확이 끝난 10월에 무천이라는 천제(天祭)를 올리고 밤낮으로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즐겼다고 한다. 마한·변한·진한의 삼한시대에도 해마다 5월에 파종하고 축제를 벌였으며, 10월에 수확한 뒤에도 거국적인 축제를 펼쳤다. 이때 천지신명과 조상신에게 제사지내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음주와 가무를 즐겼는데, 특히 춤을 출 때에는 수십 명이 무리지어 앞 사람을 따라가며 땅을 밟고 장단에 맞춰 온몸을 흔들었다고 한다. 또한 고구려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낙랑의 언덕에서 사냥을 벌여 잡은 멧돼지와 사슴을 제물로 바치고 하늘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전한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축제를 통해 집단적으로 겨레의 뿌리인 천신과 개인의 뿌리인 조상신에게 제사올리고 자연과 어우러져 흥겹게 즐기는 가운데 흥과 멋이 넘치는 고유의 풍류정신을 형성했다. 이와 같이 상하, 귀천, 남녀, 노소의 차별 없이 모두 함께 음

식을 나누어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이요 풍류사상의 발현이었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고대의 풍류정신이 유교, 불교, 도교 등 3교의 핵심 사상을 포용하여 효도, 충성, 선행, 무위자연 같은 도덕적 가치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신라시대에는 화랑세속 5계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대해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난랑비(鸞郎碑)’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3교를 포함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孔子)의 주지요, 무위의 일에 처하여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老子)의 종지요,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만들어 행하는 것이 석가(釋迦)의 교화이다...

최치원은 단군 이래의 홍익인간 사상을 포함하여 외래 종교 사상인 유불선 3교의 종지를 아울러 우리 고유의 풍류도- 풍류사상이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최치원이 여기에서 말한 나라의 현묘한 도, 즉 풍류가 단순히 화랑 세속 5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민족 고유의 선도를 중심으로 여기에 3교의 사상을 더한 풍류도야말로 민중을 교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난세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 천손족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해마다 천지신명과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베풀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흥겹게 놀기를 즐겼으니, 이 흥과 멋이 고유의 풍류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체제가 씨족사회에서 부족국가 시대를 거쳐 왕권 중심의 왕국으로 발달하는 동안 축제와 놀이의 성격도 집단적인 문화에서 점차 소수 중심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민족 정서의 두 줄기 큰 흐름이라면 무엇보다도 흥과 한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적인 놀이문화에서 흥이 비롯되었다면, 한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기록으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인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와 <황조가(黃鳥歌)>가 전해주듯이 남녀간의 관계, 즉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에서 싹트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민족 고유의 풍류정신은 열국 시대를 지나 고려조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수많은 풍류 명인을 통해 그 맥을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비록 살다 간 시대와 방식은 모두가 달랐지만 이들은 현실의 고통을 풍류의 멋으로 슬기롭게 극복, 또 다시 난세를 당해 간고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나라가 또다시 어지럽다. 당분간 국정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쨌든 정신의 여유만은 잃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민족 고유의 풍류정신을 또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

회우 광장

‘최선을 다 했는가’ 지미 카터 회상한다



한영탁
본회 자문위원
수필가

지난 1월 9일 워싱턴 대성당에서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퇴임을 눈앞에 둔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등 네 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창한 영결식이었다.

이 자리에서 카터의 전임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생전에 써둔 추도사를 그의 아들이 대독했다. 포드는 1976년 대선에서 카터에게 패배한 라이벌이었다.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겐 더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지미가 제 신경을 건드린 적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정치인 가운데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저와 지미 둘다 선거에서 지는 고통을 겪어서 그 게 얼마나 쓰라린 경험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패배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깨닫기도 했지요.” 이런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추도사에 전 현직 대통령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다섯 대통령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존중과 유머, 잔잔한 미소로 백세까지 장수한 동료 전직 대통령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만 남아 사뭇 살벌하기만한 우리 정치 풍토를 생각할 때 참 부러운 풍경이었다.

비록 잠시일지라도 화해와 관용이 흐르는 영결식 중계방송을 보면서 필자는 내 나름의 또 다른 추억과 감회에 빠져들게 되었다. 조지아 주지사이던 지미 카터가 1976년 백악관을 향한 출사표를 던지면서 펴낸 자서전을 필자가 우리말로 옮겨 출판한 인연이 있어서다. 『Why Not The Best?』(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타이틀의 카터 자서전을 번역하면서 워싱턴 정가의 때가 묻지 않은 남부 출신 다크호스 정치인을 발견한 신선한 기분을 맛보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필자는 포드와도 작은 인연이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퇴함으로써 부통령이던 포드가 졸지에 제38대 백악관 주인이 되었을 때 그의 자서전을 발췌 번역하여 우



카터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미국 전·현직 대통령.

리나라에 소개했다.

포드가 갑자기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자, 『신동아』 지(誌)가 마감을 한 주 앞두고 필자에게 국판 350페이지 지나 되는 그의 영문 자서전을 원고지 3백장으로 다이제스트(요약) 번역

우명을 지키며, 다가올 핵잠수함 시대를 열어줄 미국 해군의 촉망받는 엘리트 사관 그룹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자 가업인 땅콩 농사를 잇기 위해 군을 떠나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낙향해 버린다. 그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에 맞설 정치감각 부족 동북아 안보현실 외면...국내외 반발 부딪혀

해 달리는 황급한 원고청탁을 해왔던 것이다.

방대한 책을 정독하고 주요 내용을 균형있게 간추려 우리말로 옮겨야 하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큰 집중력과 끈기도 요구되었다. 그런데도 마감 시간은 턱없이 촉박했다. 당시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있던 필자는 회사 일이 끝나면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회사 부근 여관방을 빌려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번역 일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마감 직전에 원고를 탈고, 잡지사에 넘길 수 있었다.

40대 초반의 젊음과 투지가 아니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를 믿고 어려운 일을 맡겨준 손세일 동아일보 출판국장과 신동아 편집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혼신을 다해 번역에 매달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진다.

지미 카터 자서전의 타이틀이 된 ‘최선을 다했는가?’는 카터가 1946년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장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생활신조였다. 그는 이 좌

뒤 그는 농업이 주산업인 조지아에서 주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거쳐 1976년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다. 그때까지 남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생소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화당의 도덕성이 지탄받고, 인권과 평화, 도덕주의 정책을 들고 나온 참신성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여 그는 현직 대통령 포드를 꺾고 당당히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

대통령으로서 카터는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제2차 전략무기제한 협상의 성사 등 몇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오일 쇼크와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경제 침체 등으로 인기를 잃었다. 그래서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선거인단 489명 대 49명으로 대참패, 단임으로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카터가 백악관의 주인으로서 더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내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장교이자 농사꾼이고, 경영인이자 정치인으로서

말은 일에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필자는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릇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국 남부를 뛰어넘어서 미합중국의 연방정부와 서방세계를 아울러 이끌고, 동서 냉전시대 공산주의 진영에 맞설 수 있을 만큼의 이념적 확신과 국제문제 이해능력 및 균형감각, 그리고 통 큰 도량과 카리스마를 갖추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카터가 한국과 동북아의 안보 현실을 도외시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문제만 꼬투리 잡아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들고 나온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카터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주한미군을 198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완전 철수하는 계획을 내놓아 한국을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한국은 말할 것 없고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기관, 상·하 양원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접어야 했다.

퇴임 후 카터는 2011년 4월 친(親)사회주의 계열 전직 국가원수들과 일행이 되어 북한을 방문한 뒤, 이런 황당한 성명을 내놓는다. “북한의 취약한 인권 상황은 북한의 내부 사정이다. 따라서 외부 세력이 개입해선 안 된다. 북한의 기아와 핵개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한에 있다.” 또한 그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대표 이석기의 내란 음모 혐의 유죄 판결을 비난하는 항의성명서를 우리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그가 얼마나 편향되고 균형 감각이 결여된 지도자인지 이로 미뤄 판단할 수 있다.

퇴임 후 그는 빈민을 위한 집짓기운동(habitat for humanity) 봉사활동과 세계의 군소 독재자들을 만나 분쟁을 중재한 일 등의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일성과 더불어 대동강 뱃놀이를 즐기면서도 정작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인민의 굶주림과 인권 참상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노벨평화상의 위상을 재고하게 한다. 그는 이제 고향땅에 잠 들었다. 지미여, 아듀(Adieu)! ㉠

박식하고 해학넘치는 딸깍발이 선비

故 박연호 회우 영전에

故 박연호 회우가 지난 2월 28일, 이 세상 소풍 끝내고 저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여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영정을 바라보며 묵념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연호 위원, 잘 가시오. 고통 없는 저 세상에서 편히 쉬세요.”

고인과의 만남은 1988년 국민일보 창간 때였으니 37년 세월의 강이 우수와 같이 흘렀군요. 과묵한 성격에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이 통한다 싶으면 언중유골형 화법으로 속내를 슬쩍 내비치곤 했습니다. 고인과 논설위원실서 함께 근무한 시간은 짧았지만 교감의 폭은 컸습니다. 더 친숙해진 건 퇴직 이후였지요. 퇴직을 앞두고 글품을 팔 글밭을 개발할 의도로 1999년 ‘서울칼럼니스트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면서요. 그의 칼럼은 고전의 지혜를 문장에 녹여 이 땅의 뒤틀린 것들을 꼬집으며 대안을 제시했지요. 수목



의 향기가 나는 그의 명문은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친목회를 만들어 중국과 인도 등 해외여행을 함께 떠나 교류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문공부 고위 공무원 때 출입기자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올 정도로 인간관계가 진득하지요. 인연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 부산국제영화제에 15년 간 참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인은 수재로 자수성가형입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합격 땐 모교

문태고등학교가 플래카드를 교문에 걸어 축하했다지요. 인척 어른께 합격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 과에 지원했는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공부를 잘 한다더니 아직도 모르는 국문이 있는 건가?”라고 털어놓아 웃었지요. 서울대 출신 언론인으로 서울대 출신 티를 내지 않은 소탈한 성품입니다.

고인은 해박하고 해학적이며 한문에 조예가 깊은 선비였습니다. 퇴직 후 남들은 명함용 직함이라도 찾으려 할 때 묵묵히 한문서당에 다닌 열혈 학구파이기도 하고요. “백수는 열굴이 명함”이라고 초탈하게 농쳤지요. 2007년 중국 청두 후보초당에 들렀을 때 후보시를 깊이 있게 해설하여 가이드가 가이드 직을 내려놓을 뻔 했더니깐요. 그는 말하는 도서관이자, 지식의 창고였습니다.

중국 구체구 여행 때는 “다섯가지 색깔의 영롱한 물”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그 물이 그 물이군” 선문답 같은 조크를 톡 던져 해학에도 품격이 넘쳤지요. 아부의 출세지향과와

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목포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의 식사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밥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동향 출신 사장의 묵직한 직책 제의도 사양한 채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고수한 딸깍발이 선비지요.

고인은 튀르키예의 ‘바보 현자’ 나스레딘 호자(1208~1284)를 닮았습니다. 호자는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음울한 사회분위기를 반전시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준 인물이지요. 비열하거나 속 좁은 사람이 있으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골려주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웃음의 철학과 인생의 교훈을 남긴 것과 삶의 철학이 비슷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요. 늙은이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요양원 안 가고 죽는 게 소망이라고들 합니다. 긴 세월 투병을 했지만, 가족들의 지극한 간병을 받으며 가족 품에서 하느님의 품으로 갔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규섭 (본회 회우)

회우 에세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부르자”

세상사의 사리 판단을 하는 데 용어 사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극우, 극좌, 좌클릭 중도, 우클릭 중도, 종북, 종중, 진보연합, 반국가세력 등등 여의도 정가에서 용어의 홍수가 넘쳐나고 있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러다 보니 정치세력은 이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수많은 정치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크게 가르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념이다.

공산주의는 평등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좌파나 우파나, 혹은 진보나 보수나 라고 부르지 말고 알기 쉽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해서 부르자고

제안해 본다.

어느 교수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좌파를 지향하는 학생이 우파를 지향하는 학생보다 많았으며, 진보주의를 원하는 학생이 보수주의를 원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안 될 정치사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6·25전쟁을 겪은 선배들로부터 공산당의 잔학상을 수없이 들어왔기에 공산당이라면 치가 떨린다. 그러므로 공산당에 관해서는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좌에 치우친 중립이나 우

에 치우친 중립이나 라는 복잡한 말은 사용하지 말고 간단하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 생각하자.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도 있으니 이와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많으니 대한민국이나 반 대한민국이나로 둘로 나눠서 불러도 좋겠다.

혹은 대한민국 세력이나 반 대한민국 세력이나로 구별하면 어떨까?

우리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80년의 짧은 기간에 국가경쟁력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식민지로 지배받던 한국이 일본보다 개인당 소득이 더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는 오로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잘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공산주의 노선을 택한 나라는 거의 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정치세력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동족을 살육하는 공산주의의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배워 왔다. 일찍이

여의도 정가 ‘용어 홍수’ 단순한 분류 바람직

6·25 전쟁을 통해서 배웠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자비한 잔학상을 보아 왔다. 그럼에도 자랑스러운 10대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이 실패한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김용발(본회 회우, 한강포럼 부회장)



‘괴물 산불’에 사상 최대 피해



악몽의 일주일이었다. 지난 3월21일부터 경북 의성에서 안동, 영양, 영덕, 울산 울주, 경남 산청, 하동지역까지 영남지역을 휩쓸었던 사상 최악의 산불은 4만5천ha의 임야를 태우고 28일 비를 맞고서야 가까스로 사그러졌다. 지난 2000년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 5개 지역 2만4천ha를 태운 산불 보다 2배에 가까운 산림 피해다. 인명 피해(3월28일 현재)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총

65명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다. 산불이 이처럼 커진 것은 초속 15m의 강풍이 계속 불었기 때문이다.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km 속도로 산불이 확산돼 화선(火線)이 한 때 120km까지 늘어지기도 했다. 전국의 소방차와 헬기가 동원됐으나 진화 작업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산불이 무섭게 확산될 때는 화마가 가옥은 물론 자동차, 축사, 농업시설 등 닥치는대로 삼켰다.

명품인생

내 귀에 들리는 소리...환청인가 四面楚歌인가

호랑이처럼 강하지도, 치타처럼 빠르지도, 원숭이처럼 날쌔지도 못한 인간이 이른바 만물의 영장이 된 데에는 직립보행으로 자유롭게 손을 쓰게 되었다는 이유가 크다. 그리고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스스로 동물성을 감춘 전혀 새로운 동물이 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인간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룰 수 있는 손을 놔두고 굳이 발을 써서 공을 굴리는 놀이에 몰두하게 된 것은 묘한 아이러니다.

잘 나가다 보면 영똥한 길을 찾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듯싶다. 2002년이 그랬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일전이었다. 평소 축구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짧은 순간 몇 번의 경기를 통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 낸다는 것은 신비하고도 황홀한 일이다. 2002년 월드컵이 그랬다. 더욱이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마음껏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을 보는 일도 유쾌했었다.

그로부터 20년이 겨우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정치 돌연변이의 기막힌 딜레마에 빠져 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국경일도 아닌데 애매한 태극기 흔들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김일성찬가라도 불러줘야 하나.

월드컵에선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그 단순성이 우리를 열광케 한다. 그 광기어린 열정에 휘둘러다 보면 왠지 모를 허기가 엄습해

오기도 한다. 맥이에 굶주린 맹수처럼 말이다. 승리에 대한 열망, 골에 대한 갈망도 배고픔으로 표현된다. 그러기에 월드컵 기간 내내 닭을 튀겨 파는 가게들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며 즐거운 비명을 내지른 게 아닌가.

지금 우리는 광기도 허기도 아닌 공간병에 시달리고 있다. 민족의 리더는커녕 국가의 정점인 대통령조

차 국민의 손을 벗어난 OB지역에 날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망가뜨렸는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있다. 초나라 항우가 사방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절망했다는

방법이다.

1954년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베트남 북서쪽 디엔비엔푸의 프랑스 요새에선 프랑스군 16,200명과 베트민군 64,500명이 대치하고 있었다. 곧 전투가 벌어졌고 요새의 모든 진지가 함락되자, 항복과 동시에 11,721명이 포로가 되면서 프랑스가 손을 들었다. 그 때 궁지에 몰린 프랑스군에게 베트민군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름 아닌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노래였다. 그리고 다음 날 프랑스군은 항복했다.

지금 잔뜩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재명의 귀를 자극하는 노래는 무엇일까. 방송 인기절정의 트롯가요는 아닐 것이다. 30차의 줄탄핵으로 출사표를 날리며 의기양양하던 그에게 들리는 것은 결코 개선행진곡이 아니다. 사면초가...레퀴엠일까. 레퀴엠은 사후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곡이다.㉞

강이산/극작가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 어떤 노래?

데서 유래한 고사가 ‘사면초가’다.

성 밖에도 적, 성 안에도 적, 들려오는 노래는 적군에 패한 초나라 사람들의 슬픈 곡이었다. 그러나 이 초나라의 노래는 정작 초나라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었다. 적군에게 익숙한 노래를 조작해 불러서 상대를 속인 것이다. 적의 약점을 공략해 사기를 꺾는 심리전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종종 유용하게 사용되는



탄핵 찬반 집회는 태극기를 들었느냐 아니냐로 구별된다. 왼쪽이 탄핵 찬성집회, 오른쪽이 탄핵 반대집회다.

태극기 없는 좌파 시위 현장

회우 광장

‘박근혜 탄핵’ 때부터 촛불로 대체



임종건
본회 이사
전 서울경제 사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시위가 이전의 시위와 다른 점 하나는 ‘태극기 있는 시위’와 ‘태극기 없는 시위’의 대결이라는 점이다. 탄핵 반대 시위현장이 크고 작은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이는 것과는 달리 탄핵 찬성 시위현장에 태극기 대신 공사간의 단체인기 뿐이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상징인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나라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도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이는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없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팀을 응원할 때 응원석에 대형 태극기가 물결을 치고 얼굴에는 태극기를 그려 넣기도 한다.

해방 이후 모든 시위에서도 시위대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에 나섰다. 그것은 시위의 목적이 나라를 위한 것임을 모두에게 선언하는 행위였다. 죽은 군인들의 관은 태극기로 덮였다. 나라를 위한 죽음임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시위에서 태극기의 유무가 갈리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 때부터였다. 그 때 탄핵찬성 시위대는 태극기 대신 촛불을 들었다. 촛불 시위는 그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때의 광우병 시위에서 시작됐다. 광우병 시위와 박근혜 탄핵 시위는 주로 야간 시위였으므로 촛불을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광우병 시위 때는

찬반이 갈리지 않았으므로 시위대는 촛불과 함께 태극기를 들었다. 그러다 박근혜 탄핵 시위에서부터 찬성 시위는 촛불, 반대 시위는 태극기로 분화가 본격화했다.

윤석열 탄핵 시위에서 태극기 유무는 더욱 확산해졌다. 태극기 시위에서 성조기가 함께 등장한 것은 박근혜 탄핵 시위 때부터였다.

이번 시위에는 ‘Stop the Steal(표도둑을 막자)’ 피켓이 더해졌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후 표를 도둑맞은 결과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건 구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한 뒤 더 이상 내세우지 않는 구호이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이유의 하나로 선거부정을 주장하자 시위대가 이를 끌어다 내건 것이다.

탄핵반대 시위대가 성조기를 드는

것에 대한 반발심리. 일뿐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대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우리 사회에 태극기만이 아니라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도 엄존하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 윤석열 탄핵 찬성 시위대가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의 태극기 외면이 태극기 경시 현상을 부추기지 않도록 경계할 일이다.

어른들의 태극기를 둘러싼 적대감정이 동심의 세계마저 오염시키고 있다하니 더욱 그렇다.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태극기 액세서리를 지니고 다니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조차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말이라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광화문 일대 탄핵 찬반 시위현장을 오가며 태극기 현상을 눈여겨 보

것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우파진영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한다고 보지만 미국의 특정정파의 부정선거 주장까지 시위에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Stop the Steal’ 피켓이 나에게 어색한 것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탄핵찬성 시위대가 왜 태극기를 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명색이 나라를 위해 시위를 한다면서 나라의 상징을 외면하는 태도가 과연 맞느냐는 것이다.

나는 좌파진영의 태극기 외면이 우파진영에 의해 태극기가 선점 당한

던 중 지난 3월 중순 탄핵찬성 시위현장인 경복궁 정문 앞을 지나다 단 하나의 태극기 깃발이 눈에 띄었다. 반가운 마음에 깃발이 꽂힌 천막에 가봤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디올백’ 등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온 ‘서울의 소리’ 방송의 천막이었다. 이 천막의 여성 관계자에게 “이곳만 태극기가 걸려 있다”고 말을 건네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의외의 대꾸를 했다. 그녀는 “다른 천막에는 왜 태극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옆의 더불어민주당

이달의 시

불꽃을 기다리며

한강의 밤하늘에
알알이 박히는 빛의 함성
작열하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깜깜한 장막 위엔
잔 불티가 하늘을 수(繡)놓는다

순간의 빛, 사라짐의 연속
바람은 밤거리 외침을
안고 명멸한다
삶의 단막이 이렇던가
그래도 기다린다

한 순간의 창조를 위해
소멸도 두렵지 않다

아름다운 불꽃이 피어나니까

권준희
본회 회우/ 시인
전 부산일보 부국장

천막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민주당 천막의 한 의원에게 그 여성의 말을 전하고 “당기(黨旗)만 말고 태극기도 거는 게 어때냐? 다른 천막에도 걸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자 그는 “알겠다”고 했다. 그 뒤 광화

의사 표현 자유에 ‘나라의 상징’ 외면 문제점 태극기 둘러싼 감정 ‘동심의 세계 오염’ 우려

문을 지나면서 경복궁 앞에 태극기가 걸리는가 유심히 살폈으나 ‘서울의 소리’ 외에는 끝내 보이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 등 야당 천막이 다 있으나 어느 곳 하나 태극기는 걸려있지 않다.

공당이 저 모양이니 시민단체야 더 말할 무엇하라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경복궁 앞 풍경은 태극기 없는 시위의 진앙이 민주당임을 알게 하는 현장이다. 강제철거 대상인 그 불법 천막도 스스로 걷어냄이 옳지 않겠는가? ☞

‘월인 천강지곡’ 세종대왕 호곡소리 들린다

회우 광장

헌재 ‘탄핵판결’ 앞두고 국정혼란 지속

“실체는 없는데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잡으러 다니는 쇼 같다” 한창 독이 오른 헌재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순간 법정을 냉동창고로 만들었다. 우선 문형배 대행부처가 천정을 올려다보며 형이상학적 속뜻을 해독하려는가 움찔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목의 방점에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썰기를 박아버리느냐 하는 불꽃 튀는 대결들이다.

홍장원-곽종근-김병주로 이어지는 내란 음모론 초기에 외계인 쏘들이 최근 곽종근 사령관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그 음모론의 일각이 밝혀졌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한동훈이다.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자기 동네식구들을 몰고 들어가 이재명 대표 옆자리에 착 앉았다. 덕분에 국민이 뽑은 헌재 대통령이 즐지에 구속되는 몰빵이 되었다.

3월26일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최은정 재판장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 일부 유죄가 2심 전부 무죄로 선고되어 3심에서 유무가 다시 갈리게 되었다. 이재명은 갈림길에서 다시한번 법정회생이 된 셈이다. 얼마 전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불법으로 잡아 넣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주먹을 흔들며 석방되는 모습에 전 국민들에게 통쾌하게 보여지기도 했다.

전한길 강사는 ‘계엄이 계몽이다’며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온 몸으로 강연했다. 계엄의 참뜻을 파악한 20·30 청년들이 전국에서 산발같이 돌발되었다. 우리 청년들의 화염방사기 같은 함성 분위기를 끝까지 침묵하던 언론이나 검찰에서도 전혀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유튜브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유튜브 언론세상은 더 이상 썩은 물을 덮어둘 수 없었다.

20·30들은 지난 겨울 흑한의 눈보라 속에서, 차디 찬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몸으로 막기 위해서 수 천명이 몰려들었다. 국수본에서도 수천명의 경찰을 보내어 양쪽에서 피튀기는 극한 대결이 벌어졌다. “청년도, 경찰도 다 우리 국민이다. 불법인 줄 알지만 내가 들어가겠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수갑을 찼다.

야당의 29번째 탄핵에다가 감사원장의 의자까지 빼앗아버리는 등 국정마비가 되자 윤 대통령은 결국 2시간 짜리 낮은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폭동이나 강제도 없는 계엄이 어디 있겠는가. 소극적 계엄이지만 이렇게라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반국가세력들은 더욱 악랄한 칼춤을 출 것이다. 가족회사로 전략한 중앙선관위의 업무체계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부정선거 의혹과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자마자 안동 등 산발 화마 현상으로 달려갔다. 산봉우리마다 괴물로 고운사 사찰이 전소되고 헬기도 추락했다. 소방대원 등 20 여명의 사



“계엄이 계몽이다”라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전한길 역사 강사.

국민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일선 치안부터 공백이다. 검찰, 경찰, 대통령실 예산 등이 전부 팽팡! 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던지기 마약범과 MZ 신세대 조폭들이 날뛰어도 검·경은

고 있다. 지금도 헌재 앞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이대 등 전국대학 20·30들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되살리자며 피토하고 있지만 대죽창 좌파문학 이론은 살벌하다.

다시 ‘월인천강지곡’의 작가 세종대왕 호곡 소리가 들린다. ‘世尊尊人 일 사·르빙그리니, 萬면리령外호리사 일이시나 눈에 보논가 너기△·빙·쇼셔/ 世尊尊人 말 사·르빙그리니, 千천載지·오상짜호사 말이시나 귀에 듣논가 너기△·빙·쇼셔(세존의 일 사되리니, 만 리 밖의 일이지만 눈에 보는 듯 여기서시읍소서/ 세존의 말 사되리니, 천 년 전의 말이시지만 귀에 듣는 듯 여기서시읍소서(월인천강지곡; 기2곡)

여기에서 굳이 형이상학적인 ‘월인천강지곡’을 끌어온 것은 바로 이번 헌재에서 곧 방망이가 두드러질 ‘내란수괴’라는 재판에서 역사적인 문제의 반복성에 전율하기 때문이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윤 대통령이 맨 처음

‘실체는 없는데 호수 위 달그림자 잡으러 다니는 쇼’ 윤대통령 법정 한마디엔 ‘계엄과 호국 정신’ 담겨

망자도 속출하는 등 전국이 불타고 있다. 미군 헬기까지 달려오는 등 전 국민에게 또 하나의 불안을 던져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한총리와 의 첫 통화에서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재확인 하며 ‘민감국가’ 문제 등도 일단 안심시켜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를 다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자기를 찔러 보았다며 법무장관도 탄핵하고, 서민들도 카톡으로 까불면 민주과출소에 고발하겠다고 김정은 흥내내며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한 중국대사에게는 90도로 세세!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뜬금없이 시진핑에게 달려가 또한 세세세! 하고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입법부와 사법부는 째짜미 판이다. 공수처의 불법 화살촉으로 우선 행정수반부터 저격했다. 덕분에 대통령실은 도시락도 못 먹게 되는 깡통 신세가 되었다. 특히

백차를 운영할 기름 값도 없다.

동유럽 체코, 폴란드 등과 예약한 수백조짜리 거대한 방산과 원전건설 그리고 AI 등 첨단 반도체 사업 등을 기획하고 지속해야 하는 대통령실 운영비는 무 자르듯 삭제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야당의 입법폭주는 더욱 광폭으로 확대 중이다. 이렇게 숨 막히는 반국가적 행정마비 공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갈했던 ‘한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실현해 나가려는 것일까? 여기에 더 무서운 피리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전 교조의 반국가적 기획력이다. 이재명 위에는 민노총이 있고, 민노총 위에 경기동부연합이 있고, 그 위에서 이석기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좌파 문학단체는 어떠한가. 한국작가회의에서는 한강, 김애란, 은희경 등이 탄핵축구를 외치며 탄핵반대를 절규하는 대학생들의 입을 틀어막

전제한 논의이다. “실체는 없는데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잡으러 다니는 쇼 같다”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쇼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시키고 심지어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백보 양보해도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재판 모두에서 확실하게 전제했다. “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수호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내란자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반국가세력, 바로 공산당 패거리들이 아닌가? 이번 사건을 통해 또 하나 얻은 것은 인간본성을 재확인하게 된 거울도 있다.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성훈 경호차장, 윤상현 국회의원 등의 의리는 역시 대조적으로 더욱 빛난다. ☐

신상성(본회 회우, 용인대 명예교수)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2.24 ~ 2025.3.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권영국(2025)30,000	이형균(2025)30,000
윤석봉(2025)30,000	최광일(2024)30,000
조원석(2025)30,000	정병철(2025)30,000
노재성(2025-2027)100,000	성병욱(2025)30,000
정기정(2024-2025)60,000	박용근(2025)30,000
정서구(2025)30,000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최명우 회우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다길 25, 302호 (오류동, 거상빌라)
박강지 회우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103동 1103호(송파파크푸르지오)

언론가 소식

박민 전KBS사장 사우회 고문위촉



KBS 사우회는 지난 2월7일자로 박민 전 KBS사장을 사우회 고문에 위촉했다. 박고문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12월9일 까지 KBS 사장으로 재임했다.

KBS-경상북도-경주시 APEC 정상 성공개최 업무협약

KBS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지난 2월17일 경북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에서 APEC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진행하고 특별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BS, '2025 AI방송 원년' 선포

KBS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2025년을 'AI방송 원년'으로 선포했다. 박장범 KBS사장은 지난 3월4일 공사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2025년을 공영방송 KBS의 AI방송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신문이 내 손에, 세상이 내 눈에' 제69회 신문의 날 표어 대상

제69회 신문의 날 표어 대상에 김아현(대구)씨의 '신문이 내 손에, 세상이 내 눈에'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오지영(세종)씨의 '소통의 벽을 넘어 마음의

창을 여는 신문', 이지연(부산)씨의 '신문, 세상을 담다 사람을 잇다 미래를 열다'가 뽑혔다. 한편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전 대상은 '제트와 핀'(김성은·대구)이 차지했다.

산악회 남산 시산제 회원 18명 참석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황우연) 2025 시산제가 3월 21일(금) 오전 남산에서 열려 올 한해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기원했다. 시산제에는 회우 18명이 참가.

시산제는 국민의례 이어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의 축사(이규진 총괄부회장 대독), 장옥 고문의 산악인 선서, 최귀조 만보회장의 강신(降神), 황 산악회장의 초헌(初獻)·독축(讀祝), 헌작(獻酌) 순으로 진행됐다.

시산제 후엔 남산 정상에 올라 팔각정, 봉수대, 남산타워 등을 둘러보고 하산, 한양성곽과 백범광장을 거쳐 남대문시장 맛집 '막내회집'에서 싱싱한 회와 한잔 술로 오찬을 가졌다. 이어 쿼츠베이커리 카페에서 차담회 후 해산.

■ 참가자 : 김기원 김사모 김성묘 김윤찬 김조영 박중서 마권수 박강지 안종우 안홍렬 이규진 이준호 장석영 장옥 조명동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가나다순, 경칭 생략) <최영배 총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중헌 회우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대리, 전 한국편집기자회 회장) 3월 6일 별세



고덕환 회우 (전 중앙일보 기자) 2월 19일 별세

회우 동정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 참석



장석영 회장은 이승만동상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 상임고문 자격으로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인천대 이사장 재선임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이 최근 인천대학교 제5대 이사장으로 재선임 되었다.

CBS사우회 감사 선임



박갑술, 전우벽 회우(사진 좌·우)가 지난해 12월19일 CBS사우회 제28차 정

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돼 2026년 12월31일까지 봉사한다.

보성고 '반세기 현역기자상' 수상



임철순 회우(전 한국일보 주필)가 지난해 12월23일 보성언론인회 정기총회에서 보성고 교우회와 보성언론인회가 공동 시상한 '반세기 현역기자상'을 수상했다.

역사소설 '나당전쟁의 승리' 펴내



황원갑 회우가 최근 정통 장관 역사소설 '나당전쟁의 승리'(행복에너지 간)를 펴냈다.

본회 來訪



유승민 대한체육회장(3.12) 취임 인사차

본회 인사

▲ 팀장 이지예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대한언론인회 주요활동

- 언론인 복지·후생·친목
- 언론관계 연구·출판
- 언론상 시상 ■ 언론문화 창달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주)크로바케미칼
CLOVER CHEMICAL CO.,LTD.



「1997년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한국능률협회)



•2002 금탑산업훈장 수훈

(주)크로바케미칼 대표이사 회장 강선중



정밀화학 포장용기 세계일류화 달성

(주)크로바케미칼은 100년 이상 역사의 독일 MAUSER사 및 독일 SCHÜTZ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으며 정밀화학 포장용기 및 반도체 시약용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창립 50주년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2층,7층
TEL: 02-735-7592(代) FAX: 02-733-6197

경산1공장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 110
TEL: 053-859-8800 FAX: 053-854-8228

경산2공장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2로 89
TEL: 053-850-7800 FAX: 053-851-7895

진천공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산수산단1로 13-13
TEL: 043-535-3522 FAX: 043-535-1504



튼튼하게
탄탄하게
튼튼하게

K.스포츠 크리에이티브

KSPO홍보대사 박세리

체육진흥기금 조성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사업 등을 통한 체육진흥 기금 조성

스포츠복지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체력100,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 지원

스포츠산업 지원



스포츠산업 금융, 스포츠 기업, 일자리 및 창업 등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 사업



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 기념관, 소마미술관, 서울올림픽파크텔 등 운영

체육인재 육성/지원



체육인재 육성 (K-스포츠 에듀),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 복지 지원